

2024.01.12.(금) 증권사리포트

만든 날짜: 2024-01-12 오전 4:15

수정한 날짜: 2024-01-12 오전 4:19

2024.01.12.(금) 증권사리포트

고려아연

P&Q는 안정 예상, 변동성은 C에서

[\[출처\] 유안타증권 이현수 애널리스트](#)

4Q23(E): 영업이익 1,870억원 추정 (yoy +82%, qoq +16%)

1) 별도: 4Q 영업이익은 1,910억원으로 전망. 9~11월 LME 아연 및 연, 은 평균가격은 각각 2,495달러/톤, 2,191달러/톤, 23.0달러/온스를 기록. 아연과 연 가격은 전분기(6~8월)비 각각 +4%, +3% 상승했으나 은 가격은 -3% 하락. 아연 판매량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으로 예상되며 연 판매량은 수출 증가에 힘입어 23년 분기 최대 판매량인 13만톤을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 전분기비 연 생산 및 판매 증가에 따라 은 판매량 역시 동반 증가했을 것으로 판단. 2) 연결: 3Q 설비 보수로 생산 차질이 있었던 SMC는 보수 완료에 따라 생산 및 판매가 증가, 영업이익 역시 전분기비 개선됐을 것으로 예상. 다만, 기타 주요 자회사인 케이잼, 페달포인트, 스틸사이클 등은 영업적자가 이어졌을 것으로 추정.

1H24, 변동성이 가장 클 변수는 제련수수료

23년 11월 이후 약 2개월 동안 달러 인덱스가 빠르게 하락하며 비철금속 가격이 안정을 찾고 있는 중. 환율 역시 1,300원/달러 수준에서 변동성이 낮아진 상황. 별도 기준 24년 주요 금속 판매량은 전년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4년 상반기 주요 변수 중 변동성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제련수수료. 23년 내내 약세를 나타냈던 아연 정광 Spot TC는 24년 들어서도 약세 기조를 이어가고 있으며 톤당 100달러 하회 중. 24년 BM TC는 전년대비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며 2Q 실적부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

투자 확대와 SMC 실적 회복 전망

동사는 12월 Investor Day에서 23년 0.4조원이었던 CAPEX가 24년 1.7조원까지 4배 넘게 확대될 것이라 밝혀. 24년 주요 투자는 2차전지 소재 사업부문에서 이뤄질 것으로 파악되며 대표적인 투자로는 캠코 니켈 제련소, 케이잼 2공장이 될 것으로 관측. 실적 측면에서는 23년 증설 과정에서 생산 차질을 빚었던 SMC가 24년에는 정상적인 생산 활동을 펼치며 매출액 및 영업이익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

Quarterly earning Forecasts		(십억원, %)			
	4Q23E	전년동기대비	전분기대비	컨센서스	컨센서스대비
매출액	2,584	-12.8	12.7	2,496	3.5
영업이익	187	81.8	16.3	193	-3.2
세전계속사업이익	187	32.8	68.1	189	-1.1
지배순이익	137	-46.8	78.3	141	-2.6
영업이익률 (%)	7.2	+3.7 %pt	+0.2 %pt	7.7	-0.5 %pt
지배순이익률 (%)	5.3	-3.4 %pt	+1.9 %pt	5.7	-0.4 %pt

자료: 유안타증권

Forecasts and valuations (K-IFRS 연결)		(십억원, 원, %, 배)			
계산 (12월)	2021A	2022A	2023F	2024F	
매출액	9,977	11,219	9,874	10,045	
영업이익	1,096	919	648	689	
지배순이익	807	781	475	485	
PER	11.0	14.0	21.3	20.7	
PBR	1.1	1.2	1.1	1.1	
EV/EBITDA	5.4	8.0	10.3	9.8	
ROE	11.1	9.4	5.2	5.2	

자료: 유안타증권

[그림-1] 달러 인덱스와 LME 인덱스



자료: Bloomberg, 주: 2024년 1월 5일 기준

[그림-2] 상하이종합지수와 LME 인덱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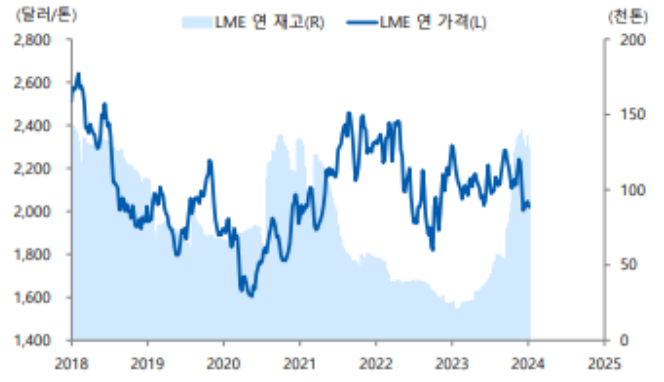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주: 2024년 1월 5일 기준

[그림-3] LME 아연 가격 및 재고



자료: Bloomberg, 주: 2024년 1월 5일 기준

[그림-4] LME 연 가격 및 재고



자료: Bloomberg, 주: 2024년 1월 5일 기준



에이에스텍

이제는 화장품 원료도 K-뷰티

[\[출처\] 하나증권 김성호 애널리스트](#)

필수 소비재로 변모 중인 자외선 차단제 원료 최초 국산화 업체

에이에스텍은 2005년 설립된 화장품 원료 제조 및 원료 의약품 개발 업체이다. 자외선 차단제는 크게 유기 자외선 차단제와 무기 자외선 차단제로 구분되는데, 유기 자외선 차단제는 백탁현상이 적으며 다양한 제형으로 적용 가능하기에 확장성이 높다. 실제로 현재 글로벌 자외선 차단제 시장 내 유기 자외선 차단제의 비중은 70% 이상이다. 과거 특허에 기반한 해외 화학업체들이 유기물질을 독점하였으나, 에이에스텍은 특허 만료 시기에 맞춰 경쟁사 대비 낮은가격으로 대표 유기 화합물인 Uvimax DHHB를 최초 국산화했다. 현재 글로벌 Top-tier 화학업체와 국내 화장품 OEM향 공급 중으로 2024년도부터는 Uvimax TDSA, EHT, BEMT 원료 향 포트폴리오 다각화가 예정됨에 따라 사업 확장이 진행 중에 있다. 2023년 반기 누적 매출액 238억원(+98.8%, YoY), 영업이익 63억원(+630.2%, YoY)을 시현했으며, 매출 비중은 유기 자외선 차단제 원료 78.7%, 기존 원료 의약품 및 기타 매출 21.3%로 나뉜다.

잘 팔리는 Uvimax DHHB, 특허와 CAPA 증설로 신규 원료 공급도 기대

에이에스텍은 자외선 차단제 제품의 글로벌 수요 증가에 따라 고객사 향 유기 자외선 차단제 원료 공급이 지속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유기 자외선 차단제 원료물질의 글로벌 1위인 독일 A사로 Uvimax DHHB로 5년간 독점 납품 중이며, 작년에는 글로벌 2위인 DSM 향으로도 5년간 상호 독점계약을 확정했다. 특히 DSM은 과거 유해성 논란이 되었던 '아보벤존'을 동사의 Uvimax DHHB로 대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선크림 수요에 맞춰 고객사에서 추가 물량을 요구하는 상황이기에 관련 실적의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된다. 한편 2024년부터는 Uvimax TDSA, BEMT, EHT 원료 공급을 통한 포트폴리오 다각화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해당 원료들은 UVA/UVB 차단제에 들어가는 대표 원료들로 기존 고객사를 포함한 국내외 업체 향 납품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DHHB, TDSA는 특허 출원 완료하였으며 BEMT, EHT 또한 특허출원 진행 중이기에 경쟁 업체의 신규 진입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2023년 11월 1공장 완공을 통해 연간 600톤에서 1,200톤으로 CAPA 증설 완료했으며, 2025년에는 2,400톤으로 2공장 증설이 예정됨에 따라 고객사 요구 물량 대응 및 매출 성장이 가능하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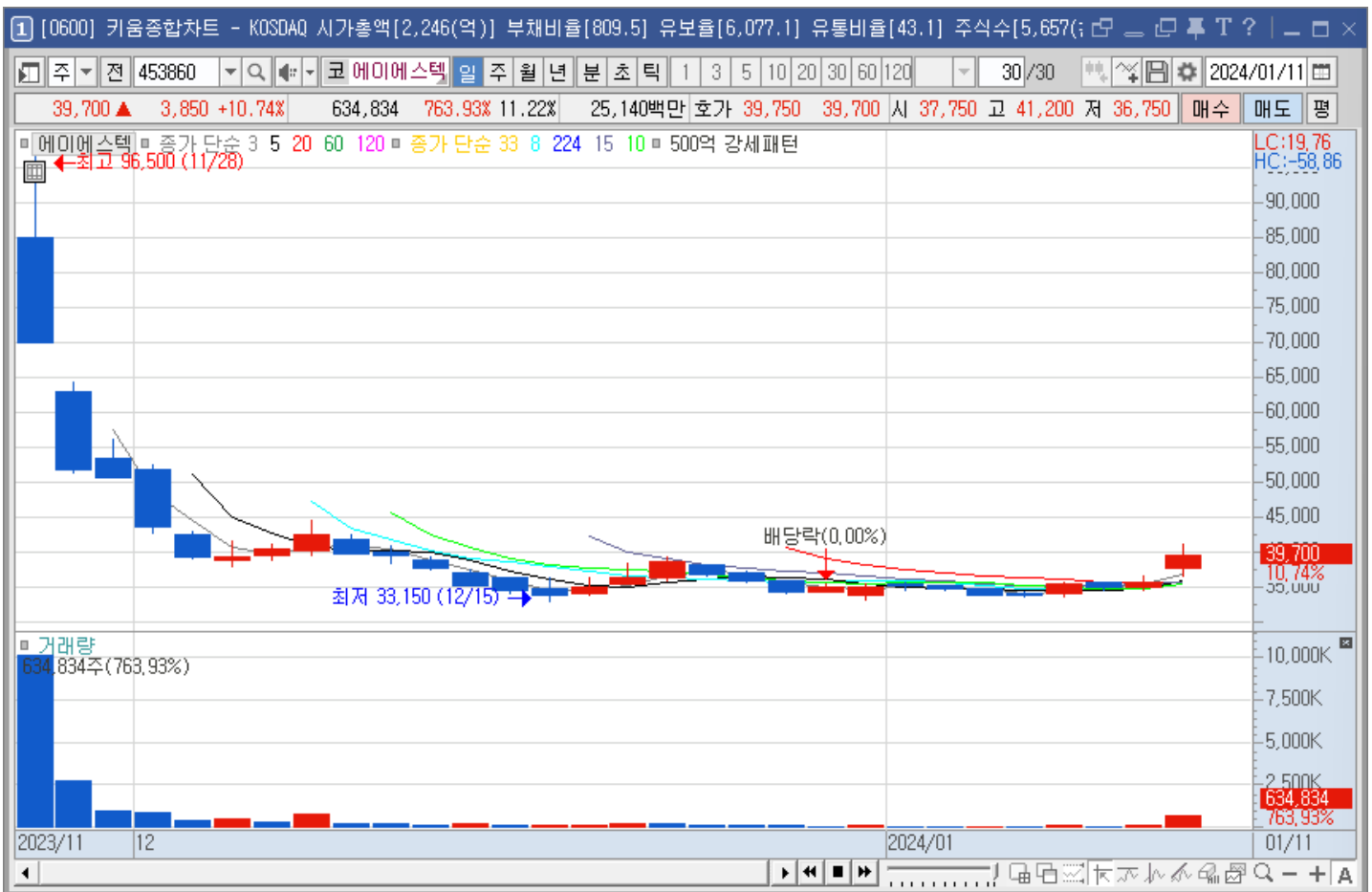
2024년 매출액 638억원, 영업이익 157억원 전망

2024년 매출액 638억원(+36.3%, YoY), 영업이익 157억원(+34.2%, YoY)으로 전망한다. 올해 5월부터 DSM 향 독점 공급계약이 시작되기에 매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기존 고객사 향 DHHB 추가 물량도 기대되며 신규 원료 납품 일정에 따른 추가적인 실적 성장도 가능하다. 과거에는 CAPA 부족으로 외주를 통해 생산하였으나 2025년까지 2,400톤 증설 및 공장 설비 자동화에 따라 지속적인 외형 성장 및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19	2020	2021	2022
매출액	0	9	15	32
영업이익	0	0	1	5
세전이익	0	0	0	2
순이익	0	1	1	2
EPS	0	170	167	593
증감율	N/A	N/A	(1.8)	255.1
PER	0.0	0.0	0.0	0.0
PBR	0.0	0.0	0.0	0.0
EV/EBITDA	0.0	0.0	0.0	0.0
ROE	0.0	36.9	26.3	48.0
BPS	0	460	634	1,234
DPS	0	0	0	0



4분기 실적 적자 전망

4분기 미래에셋증권의 지배주주순이익은 -1,041억원으로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유는 1) 지속적인 해외 부동산 경기 악화에 따른 해외 부동산 손상차손 인식과 2) 연말 비시가성자산의 재평가로 인한 연결손익 부진, 마지막으로 3) 태영건설 관련하여 충당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경상이익은 양호한 흐름

위탁매매 수수료는 4분기 일평균거래대금이 3분기 대비 감소함에 따라 전분기 대비 30.9%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IB 및 기타손익은 3분기 부진의 기저효과로 전분기 대비 32.5%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트레이딩 및 기타 손익은 금리가 하락하면서 양호한 채권평가이익을 시현할 것으로 예상되나 태영건설 관련 충당금 전입으로 증가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태영건설에 대한 미래에셋증권의 익스포저는 1,700억원으로 직간접 대출의 비중은 반반이며 4분기 500억원 수준의 충당금 적립이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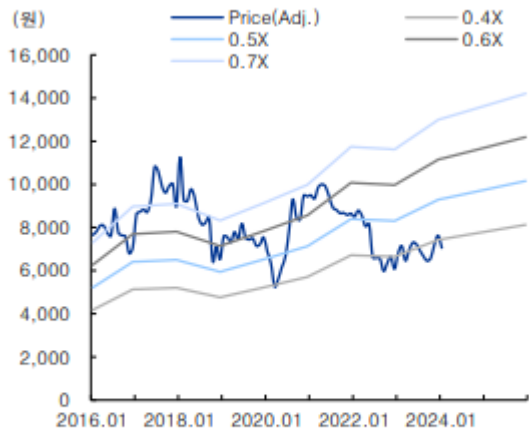
투자의견 Trading Buy, 목표주가 7,600원 유지

미래에셋증권에 대해 투자의견 Trading Buy와 목표주가 7,600원을 유지한다. 이유는 4분기 적자 시현에 따른 ROE 하락에도 무위험 수익률과 베타가 하락하며 COE가 동반 하락하였기 때문이다. 미래에셋증권은 타사 대비 큰 해외대체투자 익스포저로 Valuation 상승에 대한 부담은 존재하는 상황이다. 다만 최근 인도 증권사 쉐어칸 인수 등 부진한 영업환경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은 타사와의 차별점으로 생각된다. 또한 2024년 상반기 중 기존 30% 주주환원을 대비 개선된 주주환원 정책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부진한 주가 회복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단위:십억원, 배, %)	2021	2022	2023E	2024E	2025E
순영업수익	2,979	2,161	2,093	2,224	2,170
영업이익	1,486	846	695	803	797
지배주주순이익	1,156	601	343	643	760
EPS	1,847	976	565	1,061	1,254
증감률	49.1	-47.2	-42.1	87.7	18.2
P/E	4.7	6.2	13.5	6.7	5.6
BVPS	16,786	17,054	18,637	19,168	19,564
P/B	0.52	0.36	0.41	0.37	0.36
ROA	1.0	0.6	0.3	0.5	0.5
ROE	11.7	5.7	3.1	5.6	6.5
배당수익률	3.5	3.3	1.8	3.3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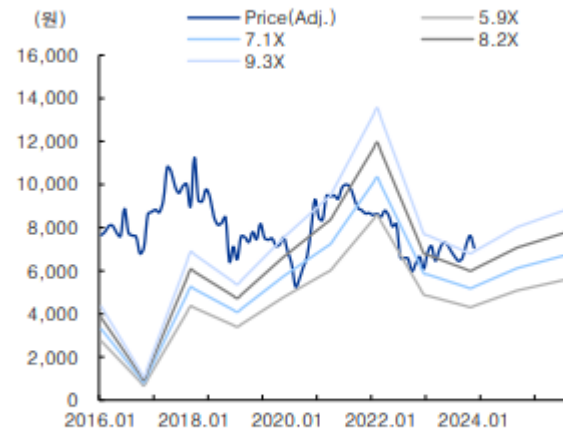
자료: Company data, IBK투자증권 예상

그림 1. PBR 밴드 추이



자료: Quantwise, IBK투자증권

그림 2. PER 밴드 추이



자료: Quantwise, IBK투자증권





LX인터내셔널

실적 하향 조정 마무리 국면

[\[출처\] 하나증권 유재선 애널리스트](#)

목표주가 40,000원, 투자의견 매수 유지

LX인터내셔널 목표주가 40,000원과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한다. 4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치에 부합할 전망이다. 12월에 호주산 유연탄 가격과 해상운임 지수 변동성이 확대되었지만 1월 들어 다소 완화되는 분위기가 확인되고 있다. 지속적인 추정치 하락이 이어졌지만 향후 매크로 지표가 안정화되는 흐름에서 2024년 실적 전망치는 제한적인 변동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2024년 기준 PER 3.7배, PBR 0.4배다.

4Q23 영업이익 864억원(YoY -45.3%) 컨센서스 부합 전망

4분기 매출액은 3.5조원으로 전년대비 15.5% 감소할 전망이다. 원자재 가격 하락과 운임 지수 약세 영향으로 외형 부진이 예상된다. 영업이익은 864억원을 기록하면서 전년대비 45.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원 부문은 GAM 광산 생산량이 비수기 영향으로 전분기대비 감소하지만 양호했던 인도네시아 저열량탄 가격으로 실적은 3분기 대비 일부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가 안정화도 OPEX 부담 감소에 기여할 전망이다. 팜은 판매량 증가로 증익이 가능하다. 트레이딩/신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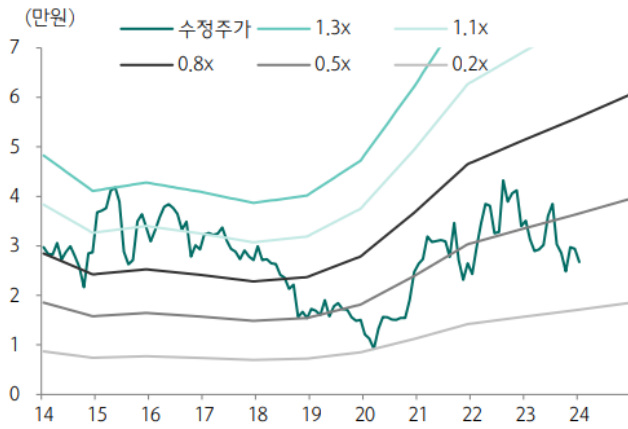
장은 IT 트레이딩이 견조한 가운데 신규 인수 법인 실적 회복으로 양호한 이익이 예상된다. 물류는 해상운임 약세 흐름에서 비수기 외부 고객 마진이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으로 추정된다. 만약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운임 변동성 확대가 오랜 기간 지속될 경우 2024년 실적 전망치 상향 근거로 작동할 수 있다. 지분법은 중국 광산 단기 생산 중단으로 물량은 감소하나 단가 상승에 전분기대비 개선될 전망이다.

당분간 안정적 실적 추이 기록할 전망

향후 추가 모멘텀은 신규 광물자원 투자 소식에 있으나 가격 약세 흐름 및 미국 규제 등을 감안하면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보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앞으로 인도네시아와 중국 광산 증산, 안정화된 매크로 지표, 신규 사업 실적 정상화, 니켈 광산의 이익 기여 등을 감안하면 영업실적은 안정적인 성장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국적 컨테이너선사 인수전 불참 이후 상승분을 배당락 이후 대부분 반납했지만 배당 기대감은 낮아진 주가에 반비례하여 확대될 수 있는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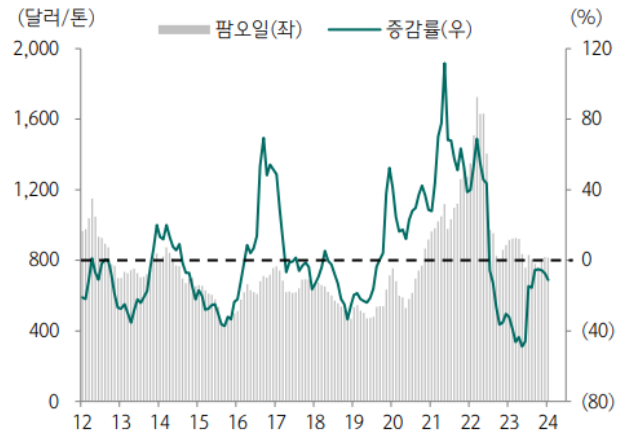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1	2022	2023F	2024F	
매출액	16,686.5	18,759.5	14,272.6	14,103.1	
영업이익	656.2	965.5	441.0	339.4	
세전이익	734.7	1,133.2	522.3	540.5	
순이익	350.1	515.2	265.8	283.8	
EPS	9,032	13,293	6,857	7,321	
증감율	17.63	47.18	(48.42)	6.77	
PER	2.93	2.55	4.29	3.69	
PBR	0.56	0.57	0.45	0.38	
EV/EBITDA	2.77	2.24	4.39	4.45	
ROE	22.49	25.53	11.18	10.90	
BPS	46,843	59,388	65,340	71,083	
DPS	2,300	3,000	1,700	1,800	

도표 2. LX인터내셔널 12M Fwd PBR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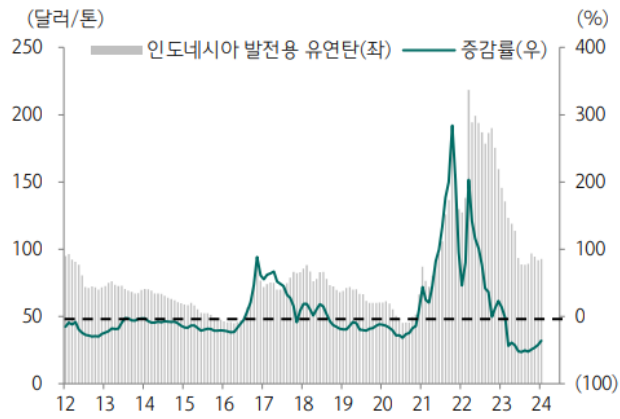
자료: LX인터내셔널, 하나증권

도표 3. 팜오일 가격 추이 (1월 YoY -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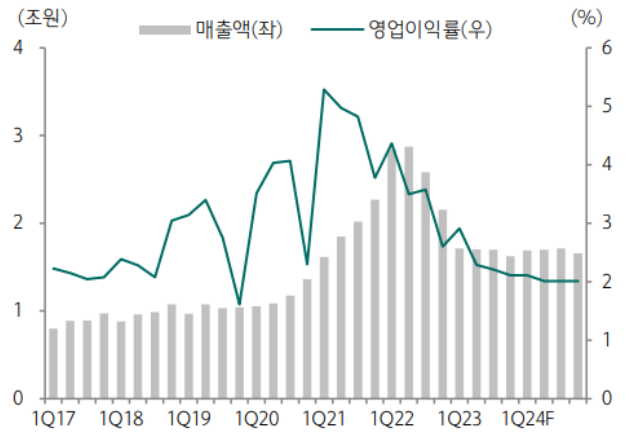
자료: Thomson Reuters, 하나증권

도표 4. 인도네시아 발전용 유연탄 (1월 YoY -36.2%)



자료: KOMS, 하나증권

도표 5. 물류부문 실적 추이 및 전망



자료: LX인터내셔널, 하나증권



롯데하이마트

4분기 수익성 개선 전략 막바지

[출처] IBK투자증권 [남성현 애널리스트](#)

4분기 영업적자 축소

롯데하이마트 4분기 실적은 기존 당사 추정치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한다. 4분기 매출액은 5,764억 원(전년동기대비 -21.5%), 영업손실 -39.5억 원(적자축소)을 기록할 전망이다. 기존 추정치에 비해 낮게 예상하는 근거는 1) 경기 악화에 따른 가전 시장 부진과, 2) 4분기 점포 폐점이 약 20개로 3분기대비 확대되면서 영업축소가 예상보다 컸고, 3) 점포 폐점에 따른 일시적 비용 증가와, 4) 4분기가 상대적으로 마진율이 낮아 공헌이익 규모가 적기 때문이다. 4분기 실적이 기대치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동사에 대한 긍정적 시각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러한 이유는 ▶ 4분기 실적 하향이 수익성 개선을 위한 점포스크랩에 따른 영향이 크다는 점과, ▶ 2024년의 경우 2023년 비수익 점포 폐점을 통해 약 120~150억 원 수준에 이익 개선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동사는 점포 수익성 개선 작업을 통해 고정비 효율화(감가상각비 + 임대료 등)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고, 동 효과는 2024년 본격화될 전망이다.

2024년 트래픽 확대를 통한 기존점 성장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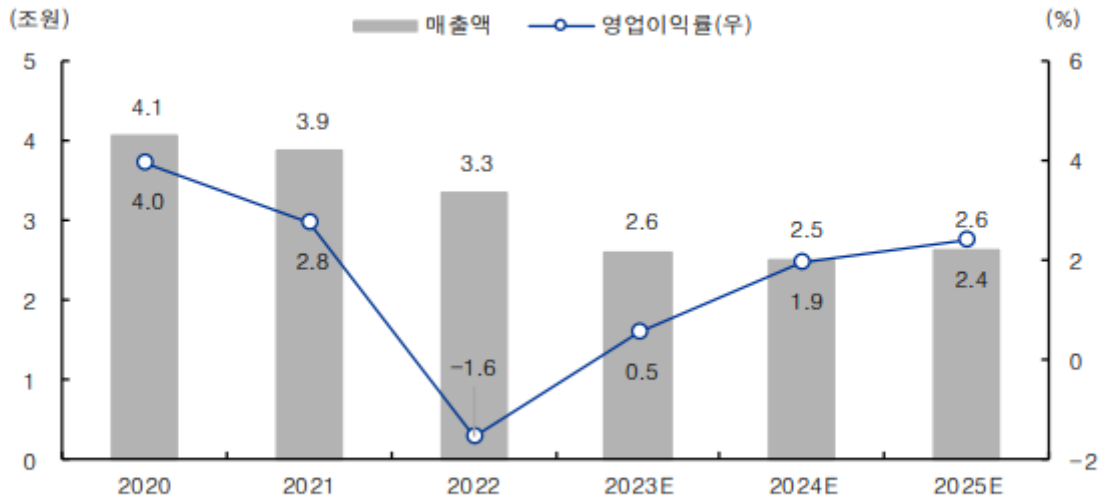
2024년은 오프라인 점포 리뉴얼 확대를 통한 전략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동사는 지난해 약 50여개 매장을 리뉴얼 하였고, 2024년 추가적으로 약 50개를 진행할 예정이다. 당사에서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이유는 1) 가전 서비스 확대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 2) 트래픽 유도를 통해 기존 제품 판매와의 시너지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2024년 리뉴얼이 마무리될 경우 약 30%에 달하는 매장이 동 방식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기존점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전략으로 평가한다.

투자의견 Buy, 목표주가 12,000원 유지

(단위:십억원)	2021	2022	2023F	2024F	2025F
매출액	3,870	3,337	2,608	2,504	2,641
영업이익	107	-52	14	49	63
세전이익	-33	-558	-1	33	50
당기순이익	-57	-528	5	25	38
EPS(원)	-2,434	-22,361	196	1,074	1,616
증가율(%)	-300.0	818.8	-100.9	449.0	50.4
영업이익률(%)	2.8	-1.6	0.5	2.0	2.4
순이익률(%)	-1.5	-15.8	0.2	1.0	1.4
ROE(%)	-3.1	-33.8	0.4	1.9	2.9
PER	-10.3	-0.5	52.4	9.3	6.2
PBR	0.3	0.2	0.2	0.2	0.2
EV/EBITDA	4.8	11.5	5.6	5.8	5.4

자료: Company data, IBK투자증권 예상

그림 1. 롯데하이마트 영업실적 추이 및 전망



자료: 롯데하이마트, IBK투자증권





크래프톤

신작 기대감은 상반기 보다 하반기

[\[출처\] 유진투자증권 정의훈 애널리스트](#)

4분기 매출액 4,327억원(-8.7%yoy), 영업이익 925억원(-26.7%yoy) 컨센서스(1,104억원) 하회 전망

PC매출(-11.2%yoy)은 전년도 TCP 기저로 yoy 감소이긴 하나, 4분기 신규맵 런칭 효과로 높은 유저 트래픽이 유지되면서 전 분기와 유사할 것

모바일 매출은 BGMI 서비스 재개 효과로 +14.5%yoy 성장을 예상하지만, 연초 이후 지속된 펑피모바일 매출의 성장이 둔화됨. 최근 중국 당국의 게임시장 규제로 향후 화평정영 매출 부진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나, 상대적으로 ARPU가 낮은 슈팅 장르 특성상 그 영향은 덜할 것으로 전망. 다만, 중국 게임시장 성장률 부진 영향은 존재할 것

영업비용에서는 4분기 인도지역 마케팅으로 마케팅비 증가, 주가 상승으로 인한 주식보상비용이 증가할 전망

2024년 신작으로 상반기 다크앤다커, 하반기 프로젝트 버짓이 대기 중. 경쟁이 치열하고 성장률이 부진한 모바일게임인 다크앤다커 보다는 하반기 트리플A PC/콘솔 프로젝트 버짓의 실적 기여도가 더 클 것으로 예상

12월 결산(십억원)	2021A	2022A	2023E	2024E
매출액	1,885	1,854	1,809	1,913
영업이익	651	752	696	658
세전손익	761	684	907	701
당기순이익	520	500	688	533
EPS(원)	10,617	10,190	13,986	10,827
증감률(%)	-18.3	-4.0	37.2	-22.6
PER(배)	43.3	16.5	14.8	19.1
ROE(%)	17.9	10.3	12.7	8.9
PBR(배)	4.9	1.6	1.8	1.6
EV/EBITDA(배)	27.6	9.1	11.8	12.0

자료: 유진투자증권





SK아이이테크놀로지

24년은 북미 투자 발표 및 고객사 다변화의 원년

[\[출처\] 키움증권 권준수 애널리스트](#)

4Q23 영업이익 91억원, 시장 컨센서스 소폭 상회

SK아이이테크놀로지 4Q23 실적은 매출액 1,917억원(+5%QoQ, +8%YoY), 영업이익 91억원(+17%QoQ, 흑자전환 YoY)으로, 시장 컨센서스를 소폭 상회 할 전망이다(영업이익 컨센서스 86억원). 최근 전방 수요 둔화 및 연말 재고조정 우려 확대되고 있으나, 동사는 Captive 고객사와 계약상 최소 물량을 보장받고 있어 2023년 판매량은 시장 기대치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5%YoY). 4분기부터 북미 고객사향 샘플 매출 발생 및 최소 물량 보장에 근거한 주요 고객사향 물량 증가로 판매량이 전분기 대비 +5%QoQ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가동률 한국 30~40%, 폴란드 70%, 중국 90% 추정). 수익성의 경우 전분기에 진행된 폴란드 공장 정기보수의 기저효과 예상되나, 신규 사업 부문의 적자(-42억원 추정) 및 연말 일회성 비용 발생으로 올해까지는 수익성 개선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

2024년 영업이익 822억원(+480%YoY) 전망

2024년 실적은 매출액 9,941억원(+49%YoY), 영업이익 822억원(+480%YoY)을 기록할 전망이다. 당사는 과거 경험을 토대로 바인딩 계약을 확대하는 한편, 상업 가동 시점의 전략적 대응으로 실적 가시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폴란드 Phase 2~4 가동 시점을 유연하게 조정하고 기존 공장의 가동률 상승을 통해 고정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24년부터는 신규 고객 확보로 Captive 비중을 점진적으로 낮춤으로써 실적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FEOC로 인한 고객 다변화 및 공급계약 확대 모멘텀 유효

지난해 12월 미국 에너지부가 발표한 해외우려기관(FEOC) 가이던스 발표 직후 '배터리 부품' 중 분리막 업체들의 주가 상승세가 나타났다. '배터리 부품'의 경우 24년부터 바로 적용되며(EV Tax Credit 대상 차종 43개 > 19개로 감소), 지역상 북미(29년 100%)에서 생산되어야 IRA 보조금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분리막/전해액 소재의 경우 그동안 중국산 저가 제품을 많이 사용해왔기때문에, 한국/일본 분리막 업체에게는 큰 기회가 열릴 것으로 판단한다. 당사는 폴란드/한국에 유휴 CAPA가 아직 남아있어 신규 고객사 확보 시 즉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일부 고객사의 경우 스팟 물량 납품 이력이 있어 별도의 테스트가 불필요하고, 28년 가동을 목표로 북미 투자도 검토 중에 있어 수혜 강도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이건 'BUY', 목표주가 102,000원 유지한다.

투자지표				
(십억원, IFRS 연결)	2021	2022	2023F	2024F
매출액	603.8	585.8	668.8	994.1
영업이익	89.2	-52.3	14.2	82.2
EBITDA	206.9	103.6	220.0	349.3
세전이익	111.6	-34.6	30.1	84.0
순이익	95.4	-29.7	27.0	75.4
지배주주지분순이익	95.4	-29.7	27.0	75.4
EPS(원)	1,393	-416	379	1,058
증감률(%YoY)	-8.4	적전	흑전	179.2
PER(배)	120.6	-127.3	208.2	79.0
PBR(배)	5.40	1.74	2.57	2.65
EV/EBITDA(배)	56.9	41.1	29.1	20.8
영업이익률(%)	14.8	-8.9	2.1	8.3
ROE(%)	5.6	-1.4	1.2	3.4
순부채비율(%)	-9.3	22.2	35.6	58.0

자료: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